

초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력 급감 고령층 재취업·서비스업 전환 시급

산업연구원, ‘산업인력 전략 포럼’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 우려
고령층 노동연장과 재취업 필요
경험·지식 활용 서비스업 선호
단순노무직보다 연구·행정 강세
한국형 고령친화지수 정책 활용 제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층 활용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올해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령화 지수는 181.2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저성장 또는 역성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산업

별 수급 전망·외국인력 확대·AI·로봇 투자·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대응을 펴왔지만, 정작 고령층을 새로운 생산연령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9세까지 확대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3723만명으로 오히려 2025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OECD도 고령층 노동수명 연장이 GDP·재정 여건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고령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무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형 고령친화지수(kAFI)’ 개발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1521명 대상 설문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기반 537개 직업 데이터, 한국어 특화 자연어 처리 모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kAFI를 제시했다. 지수 도출 결과, 고령층은 단순 노무직 중심 일자리보다는 경험·지식·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를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교

육·연구·행정 분야 직종이 고령친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학·정치학·사회학 연구원 ▲대학 시간강사 ▲학교 관리자 ▲정부행정전문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기계 조작직, 기능직, 노무직 등 신체적 요구수준이 높은 직업군은 하위권이었다.

이 연구원은 “고령친화 일자리 확대는 노동공급 감소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직종별·산업별·지역별 고령친화도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단순노무직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 강화, 재직·전직 교육훈련 확대, 에이지테크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가까운 미래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변화라는 도전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응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육상·해상 모빌리티 융합 기술개발 확대

한자연, 부산대와 기술협력 MOU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부산대학교와 협력해 수소 모빌리티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장에 앞장선다. 한자연은 지난 8일 부산대학교와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저장·이송·활용 등 핵심 기술의 전주기 연구개발 및 실증을 공동 추진해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한자연의 육상용 모빌리티와 부산대의 해상용 모빌리티를 융합해 모빌리티 전 영역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액체수소 저장·공급을 위한 소재·부품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 ▲액체수소 저장탱크 등 핵심 기자재 및 시스템 단위 실증을 통한 기술 고도화·상용화 촉진 ▲육상용, 해상용 모빌리티 전반으로의 수소기술 확산 및 사업화 ▲수소산업 관련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국내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과제 기획 및 발굴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임광훈 한국자동차연구원 부원장(오른쪽)과 박상후 부산대 대외·전력부총장이 지난 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자연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수소자동차 및 수소선박 관련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모빌리티 관련 기초 기술과 응용기술을 관련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욱 한자연 원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수소 에너지의 활용과 확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자동차 산업을 해상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상반기 배정액 468조, 조기집행 준비

정부가 2026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연초부터 자금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술주도 성장 ▲사회안전 ▲국민안전 ▲외교·안보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신속 추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는 조기 집행을 필수 전제다.

내년 예산총계는 624조8000억 원이

며, 이 중 상반기 배정액은 46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최근 6년간 상반기 배정률을 보면 2021년 72.4%, 2022년 73.0%, 2023년~2026년 75%로 확대·유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 대응과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체제 돌입

전사 설비 점검·현장 특별점검

한국서부발전이 난방 수요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겨울철 전력수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설비 점검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8일 충남 대안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5년 12월 8일~2026년 2월 27일)에 대비한 전력수급대책 화상회의와 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2026년 1월 셋째 주 88.8~94.5GW로 관측돼, 2022년 12월 23일 기록한 겨울철 역대 최대치(94.5GW)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발전은 한파와 폭설로 인한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설비 안정 운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경영진은 ▲전력수급 비상상황 보고체계 ▲긴급 대응·복구체계 ▲연료 확보 현황 ▲한파 취약 개소 보강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설비 안정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동결·동파 위험이 높은 설비와 발전기 불시고장과 직결되는 주요 설비를 중심으로 세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정복 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한파로 전력수급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단 1건의 고장도 일어나지 않도록 발전설비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년 장학생 135명 모집

장학금 1억9950만 지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내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드림파크장학회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드림파크장학회가 담당한다.

2026년도 장학생 선발 규모는 총 135명, 지급 예정 장학금은 총 1억9950만 원이며, 학업우수·드림·특기 장학생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중점 지원대상인 드림장학생의 경우,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 중 학업 성취도와 바른 생활 태도를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 특기장학생은 2025년 각종 전국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2년 드림파크장학회의 설립을 통해 현재까지 총 1648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도합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선발에서는 전년(127명)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송병역 사장은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자세한 선발 요건, 제출서류, 절차 등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드림파크장학회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드림파크장학회로 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해외마케팅종합대전’ 행사장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K푸드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농식품부, 수출기업 전담 ‘N-데스크’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대응
현장 의견 반영, 민관 협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협회·단체와 소통 기회를 늘리는 등 ‘K-푸드’의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렴할 전담창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국산 농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지에서 까다로운 현지 통관·표시 규제 등 비관세장벽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지원 전담창구 설치, 한국형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간 등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9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해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해 문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해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해 단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지원한다. 또 장기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민·관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접수된 사례들을 정리해 농식품 분야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로 종합하고, 애로사항이 해소되기까지 논의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환영하고, 미국 배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으나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정부에서 업계의 수출 애로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